

페르시아전쟁을 불러온 ‘왕의 예시몽’, 현대인들도 ‘예시몽’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최효찬
칼럼니스트



기원전 480년 봄,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 왕이 그리스를 침입하기 전에 꿈을 꾸는데 그 꿈이 세계사적으로 첫 동서 간 전쟁으로 기록되는 그리스 원정을 결행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크세르크세스가 그리스 원정을 생각하고 신하들과 논의한 뒤, 아르타바노스의 의견에 따라 그리스 원정을 중지하기로 마음먹고 밤에 잠이 들었다. 그날 밤 꿈에 키가 크고 잘생긴 남자가 나타나서 그리스 원정을 진행하라고 촉구한다. 그런데 다음 날 회의에서도 크세르크세스는 여전히 그리스 원정을 중지하기로 결정했는데 그날 밤에 다시 꿈을 꾸게 된다. 이번에는 앞서 꿈처럼 단순히 원정을 계속하라는 경고만이 아니라, 크세르크세스가 권좌에서 밀려날 것이라고 위협한다. “다리우스의 아들이여, 그대는 페르시아인 앞에서 공공연히 원정 중지를 선언하고 내가 말한 것을 무시해 버렸소. 그러나 알아두시오, 즉시 원정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대는 짧은 시간 내에 권좌에 오른 만큼 빨리 몰락하게 될 것이요.”

이 꿈에 대해 숙부인 아르타바노스를 불러 상의하자, 그는 왕의 꿈 이야기가 쓸데없는 걱정이라며 마치 현대인의 심리학적인 꿈풀이처럼 이렇게 말한다. “전하, 그 꿈은 신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요컨대 꿈이라는 것은 낮에 생각했던 것이 잠잘 때 환영이 되어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도 위안은 되지 못했다. 크세르크세스는 그리스 원정을 중지하면 실각할 것이라는 예시몽에 불길한 마음을 억누르지 못했다. 고민 끝에 아르타바노스에게 자신의 의상을 입고 옥좌에 앉아 있다 왕의 침소에 들러 잠을 자기를 권했다. 왕은 자신의 꿈에서처럼 그리스 원정이 신의 뜻이라면 아르타바노스에게도 같은 꿈과 환영이 나타나리라고 생각했다. 왕의 의상을 입고 왕의 침소에서 잠을 청한 아르타바노스는 꿈속에서 크세르크세스 왕이 꾸는 꿈을 그대로 꾸었다. 그가 잠들자 크세르크세스를 찾아왔던 바로 그 환영이 침상에 나타나 말했다. “크세르크세스를 걱정하는 체하며 그리스 원정을 중지시키려는 자가 그대인가? 장래의 일이든 현재의 일이든 운명의 흐름을 바꾸려 한다면 천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빨갛게 달아오른 쇠로 아르타바노스의 눈을

찌르려 했다. 그는 큰소리를 지르며 벌떡 일어난 뒤 크세르크세스에게 달려가 꿈 이야기를 전하며 신의 뜻이 그리스를 멸망시키는 데 있다고 전한다. 크세르크세스는 날이 밝자마자 곧 꿈의 전말을 페르시아인들에게 알렸고, 그리스와의 전쟁에 돌입했다.

이 꿈 이야기는 ‘역사의 아버지’로 불리는 헤로도토스가 쓴 최초의 역사서인 ‘히스토리아이’(원뜻은 ‘탐구’인데 ‘역사’로 번역) 대미를 장식하는 내용이다. 이처럼 최초의 역사서인 ‘역사’에는 신화의 세계, 신탁의 이야기들이 혼재되어 있다. 그리스는 델포이 신탁의 예언(‘나무로 만든 벽 안에 들어가 있으면 무사하리라’)대로 배를 만들어 해전을 준비해 살라미스 해전에서 승리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 왕은 애초 그리스 원정을 중지하려 했지만, 원정을 하지 않으면 권력을 잃게 된다는 꿈을 꾸 후에 원정에 나섰다고 헤로도토스는 기록하고 있다. 헤로도토스는 신화시대의 그리스를 그 후 사건의 배경으로 그려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의 그리스 원정에 관한 이야기를 이끌어가면서도 ‘신탁’과 ‘꿈’이라는 문학적 장치에 의존했다. 이 때문에 투키디데스는 헤로도토스를 ‘역사의 아버지’가 아니라 ‘거짓말쟁이의 아버지’로 폄하하기도 했다.

현대사회에서 학문의 세계든 기업의 세계든 가능한 과학적 사고로 접근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현실세계에서조차 수많은 ‘결정’에 반드시 과학적 사고만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때마침 최근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의 장남 김정남이 한국 역술인에게 자신과 가족의 사주를 봐달라고 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다. 그 역시 인간적인 불안을 달래기 위해 점성술에 의지한 것일 게다. 따지고 보면 우리 또한 다를 게 없다. 우리 대부분은 전날 밤 꿈에 따라 하루의 길흉을 점쳐보지 않던가 말이다. 크세르크세스가 그리스 원정이라는 세계적인 대전을 앞두고 ‘꿈’에 의지해 원정을 ‘결정’했다는 헤로도토스의 역사 서술이 오늘날 기준으로 볼 때 흥미주의적 접근이라고 매도될 수 있지만, 인간의 의지와 신의 의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한다.